

모든 세계인이 함께 겪고있는 2년간의 고통이 지나가며 어려웠던 어제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서 안도와 평안한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어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많은 이웃들의 아픔도, 2년여 기간중에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도 모두가 회복 되어진다는 회복의 축복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3월부터는 부분적인 대면수업이 시작되어 2년동안 보고싶은 친구들을 만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며 마냥 즐거워 하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용기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다행히 어린이들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활기를 되찾고, 주 3일 만 대면수업을 하고있지만 어린이들은 주 5일 수업을 원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배움과 믿음이 회복되어가는 기쁨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크리스찬스쿨 예수마을학교는 초등학교의 부족한 교실 3칸을 금년에 증축을 해야하는 과제가 있으며, 금년에 초등학교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아직 중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속히 중고등학교가 신축되고 오픈되어 크리스찬스쿨에서의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마을학교 인근에 있는 새소망교회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리모델링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LG와 기아대책본부의 지원아래 마을 쉼터인 빨래방을 오픈하게 되어 4대의 세탁기와 2대의 건조기가 열심히 작동되고 있어서 주부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배당도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 되었던 예배를 7월 첫주부터 다시 시작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소망교회는 2층에 선교팀을 위한 숙소를 증축할 계획이며 어린이들을 위한 숙소도 계획하여 선교센터로 꾸며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예배당의 과거(위)와 현재(아래)



너무 오랜 기간동안 계속되었던 여러가지 어려움의 끝이 보인다고 싶었는데 국제적인 공동의 어려움이 다시 밀려오고 있어서 성도와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감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도시빈민촌에 있는 두개의 교회 모두의 목회자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교회를 떠나는 슬픈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 학생들의 가정도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학비가 없는 국립학교로 전학하거나 학업을 잠시 중단하는 모습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출수 없게 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우리 모두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페루 리마에서 백창호선교사, 윤애경선교사